

말레이 경찰 부인에도 김한솔 입국설 ‘술술’

김정남 신원확인 중요 변수
외교관계 의식 비밀 유지설
경찰 “언론보도 가짜” 재확인



사망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말레이시아 당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김정남(46)의 시신을 확인하기위해 아들 김한솔(22)이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다는 설(說)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김한솔 입국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극물 테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 확인 과정에서 수사 주체인 말레이시아와 당사국인 북한이 대립하는 가운데 김정남이라는 신원확인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권에 적힌대로 망자(亡者)는 ‘김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말레이 당국은 김정남이 신변 보호를 위한 위장용으로 김철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는 강한 심증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말레이 당국은 북한에 김철임을 증명할 수 있는 DNA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마카오 거주 김정남

자녀인 김한솔·솔희 남매의 자국 방문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특히 김한솔은 파리에서 대학과정을 유학한 22세의 성인이란 점에서 그가 외주길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솔의 선택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정남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병원에서는 지난 20~21일 김한솔의 입국설 때문에 각국 언론에 비상이 걸렸다.

심야 한때 병원 근처에 경찰 특수부대가 배치되면서 김한솔을 경호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누르 히삼 압둘라 말레이 보건부 총괄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유족을 기다리고 있다”며 입국설을 부인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도 22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나온 김한솔 입국설은 모두 헛소문”이라고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김한솔의 입국설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의 중문매체 중국보(中國報)는 김한솔이 이미 시인확인 절차를 마무리했다고까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21일 새벽 1시경 김한솔이 경찰의 도움으로 경찰특수부대원으로 위장한 뒤 쿠알라룸푸르 중앙병원 시신 안치실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한솔이 3시간 만에 시신 신원확인 수속과 DNA 샘플 채취 절차를 마치고 현장에 온집한 언론 매체들을 따돌리

고 특수부대와 함께 철수했다고 했다. 중국보는 김한솔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후 경찰의 보호와 안내에 따라 암살 위험과 언론의 취재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입국후 필요한 일을 마치고 떠났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같은 입국설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김한솔이 김정남의 시신확인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면서도 북한-말레이시아-중국의 외교관계를 큰 영향을 줄 존재여서 극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결가지’를 처내려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 김한솔이 부친 김정남에 이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암행’을 하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고서도 그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전해지고서 말레이 입국설이 나온다.

말레이와 북한,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간에 복잡하게 얽힌 외교관계를 의식해서라도 김한솔의 입국은 기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근거로 비밀 방문설이 제기된다.

현지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종료되기 전까지 김한솔 말레이시아 방문설은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비아 해안서 난민 시신 무더기 발견 리비아 서부 지중해 해안에서 난민 시신 최소 74구가 바다에 떠밀려 다니고 있다고 리비아 적신월사가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적신월사 대변인은 당국은 120명 정도 됐던 것으로 보이는 고무보트가 부서진 채 시신을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폐쇄 정책’ 본격화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 1만명 확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 인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키로 했고, 이들에게 부여하는 체포미 구금권한도 확대한다. 또한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에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불법 입국자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미국도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령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2건의 행정각서는 각각 미국 내 이민 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중범죄자 단속이 최우선 순위인 가운데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체포 및 구금은 물론 추방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정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폐지했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을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될 수 있어 당선인 시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리정철 인맥 찾아라...북한 교민 대거 수사 대상

김정남 암살이 북한의 배후로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교민들이 대거 수사대상에 오르며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국제 용의자 4명이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간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은 3명의 또다른 북한 국제 연루자들을 추적하며 현지 거류 중인 북한 교민, 주재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중문매체 동방(東方)일보가 22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소식통은 체포된 리정철(46)이 현지에 1년간 장기 체류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지 북한 교민·주재원 사회에 일정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주변 인맥부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리정철이 과거에 다녀갔던 식당이나 협력 기업들을 상대로 리정철과 다른 7명의 도피범들이 서로 연계했거나 회합하는 등의 접촉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북한계 기업 및 상점은 경찰의 조사를 우려해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단 말레이시아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기밀을 유출한 ‘역적’으로 몰릴 것을 우려,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해외에 나가 있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수년전 북한 식당 ‘평양’이 문을 닫은 이후 말레이시아 유일의 북한 식당으로 남아있는 쿠알라룸푸르 시내 고려관도 최근 언론과 당국의 주목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영안실을 지키고 있다.

기 위해 영입시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고려관의 당초 영입시간은 오전 11시30분~오후 3시30분과 오후 5시30분~11시30분이었으나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낮 영입은 하지 않고 저녁에만 문을 여는 것으로 바꿨다.

말레이시아는 북한 국적자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여명의 교민, 주재원, 외교관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김정남 암살 수사와 시신 인도 문제로 갈등이 커지면서 말레이시아가 무비자 재검토와 함께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불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주요 일지

-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2층에서 김정남, 여성 2명으로부터 독극물로 추정되는 공격받아 살인, 오전 11시경 사망 선고.
- 15일 말레이시아 경찰, 베트남 여권 소지 도인 티호영(29)과 인도네시아 국적 사티 아이사(25) 등 여성 용의자 2명 체포. 김정남 피살 당시 공항에 있던 남성 용의자 4명 추적. 말레이 당국, 김정남 시신 부검 및 화학검사 착수.
- 16일 북한, 말레이 당국에 김정남 시신 인도 요청.
- 17일 말레이 경찰, 쿠알라룸푸르 시내 아파트에서 북한 국적 리정철(46) 체포. 경찰 북한대사,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당국의 부검 결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
- 18일 말레이시아 정부, 김정남 시신 인도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북한 주장 반박하며 부검 등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법원을 접수하라고 촉구. 북한 대사관, 리정철 연담 요구하다 불발.
- 19일 말레이시아 경찰 기자회견. 경찰은 리정철 등 신원 확인된 남성 용의자 5명 국적 북한이며 이중 4명은 모두 사건 직후 출국했다고 발표. 김정남 시신은 독성검사 끝나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
- 20일 경찰 북한 대사, 기자회견 자청해 말레이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 배후설도 강력하게 부인. 북한과 말레이 공동수사 요구.
- 21일 말레이시아 보건부, 김정남 부검 관련해 심장마비로 일으켰다는 증거 없고 시신에 이상이나 물린 흔적도 없었고 발표. 나립 리정철이 총리, 강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으로 무리했다고 비판.
- 22일 말레이 경찰, 앞서 지목한 북한 국제 용의자 5명 외에 북한대사관 2층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연루자로 신원 공개. 북한의 공동수사 요구 일축.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광주 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월세수익내면서 내 건물 확보)

추천

- 본사건물 / 지사 건물
- 연구실,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 가 38억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광주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 ◆ 평수 15평
- ◆ 평수 12평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 010-7384-7800
-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용 2천)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아선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용 5천)
- 상무지구 주거용/사무실 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062-511-7800 010-6832-97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6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광산구 소촌동 (주유소) 토 207평, 건 43평 소촌공단 입구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5억6천 → 최저가 5억6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통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6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